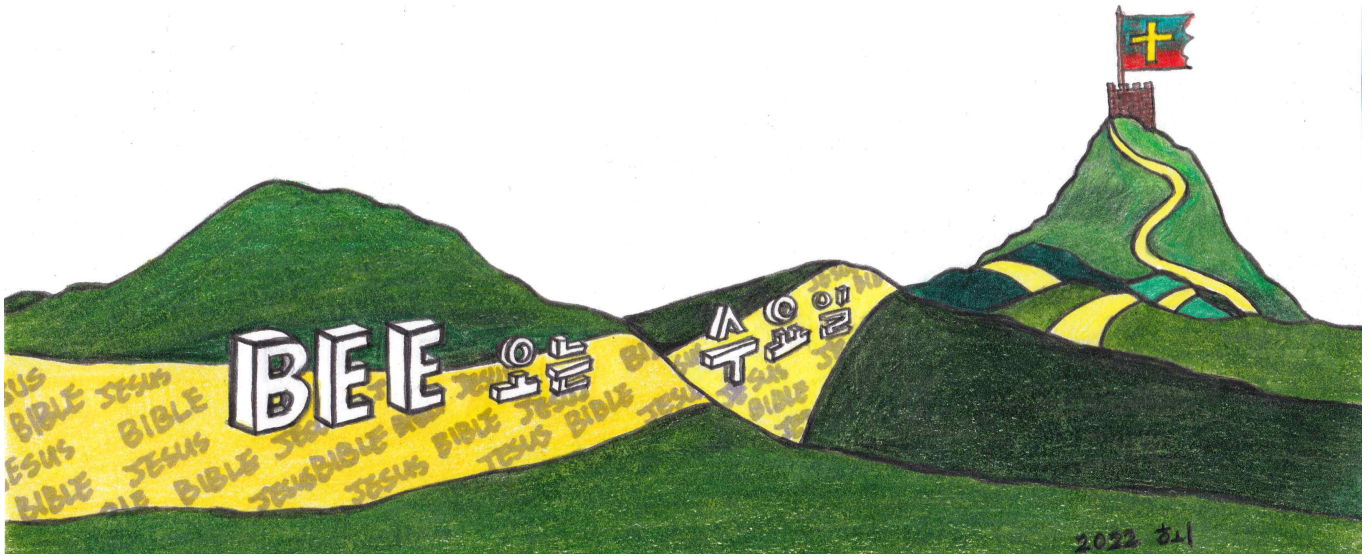




스물다섯번째 이야기

동역, 함께하다

[풋대를 향하여⑤-동남아]

샬롬! 김일관 선교사님!



20여 년 전 청년부 총각 전도사로 인기 짝이었던 김일관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었는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필리핀 선교사로 BEE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2년 전 선교사님의 아버님 소천 시 만났을 때 저희 부부를 단번에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파송교회인 방주교회 장로님을 통하여 선교사님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에 나가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다시금 나가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2년여 동안 멈추어진 여러 사역을 재개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기대하며 설레고 기뻐하시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주님!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무릎관절이 더는 악화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 건강함으로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최은주 사모님의 녹내장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서인이의 기관지염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인이와 서울이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자녀에게 깨달음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부부가 연합하여 동역할 때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조나단 선교사 부부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선교사님의 가정이 기도와 말씀,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가정되게 하시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기도 테이블 식구들이 필리핀으로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사역의 열매가 매일 거두어 지길 간구하며 중보하겠습니다.



반상섭 집사 드림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요즘 날씨는 어떤지요? 한국은 이제 완전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제는 3년 만에 OBC 세미나를 대면으로 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이천만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 품에 안겨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와 기도 테이블 식구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 공원에서 함께 커피 타임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비대면으로 모임할 때는 멀리 인도네시아 땅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뵙고 사역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함께 기도 테이블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지난 6월 좋은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기뻐하시며 집 안내를 해주셨던 강 선교사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손녀 민하가 세상에 빛을 본 지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테이블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회복되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실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그 그리운 마음을 참아내시며 사역에 열중하시며 기도에 힘쓰고 계신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요.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시며, BEE 선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 부부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리더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길 기도하며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 두 그룹을 위해,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기도 테이블 식구들과 함께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으로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뵈 때까지 건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날에 이승혜 권사 드림



사랑하는 봉해남 선교사님, 강성자 선교사님께.



돌이켜 보니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BEE를 같이했지만, 차분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시간을 갖지 못했네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Zoom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서, 참여하신 선교사님과 강성자 사모님께서 직접 영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선교사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Zoom을 통해서라도 선교사님을 자주 뵈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BEE의 다른 모든 기도 테이블이 그러하듯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동남아 기도 테이블은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기도 테이블 리더분들의 헌신과 든든한 영적 뒷받침으로 동남아 기도 테이블 식구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 테이블을 통해 중보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밀감과 하나됨을 경험케 하는 모임은 기도 모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교사님과 강성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BEE 사역과 세미나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네시아 지역마다 현지 사역자들을 통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BEE 인도네시아의 현지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 희욱과 혜리, 손주들, 민우와 민하가 늘 강건하길, 민하의 심장 천공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의 영혼들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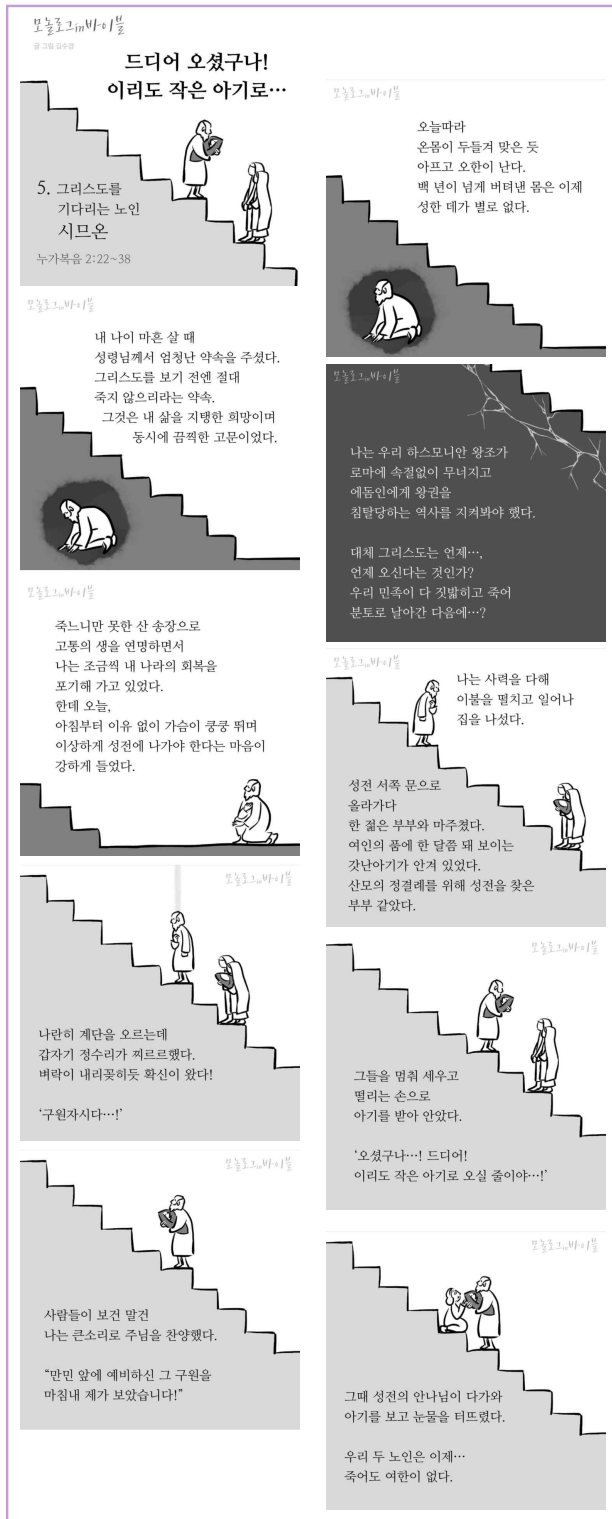
주안에서 신현승 장로 드림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BEE 소식

-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 2022년도 하반기 FTS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헌신하는 예비 인도자 15명을 축복하며 은혜가 가득한 FTS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10월 29일(토) 청주, OBA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랜 만에 수련회로 모이는 OBA 가족을 축복하며, 예배와 풍성한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세요!
- 찬양과 악기로 토요 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 기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싱어, 인도자 모집합니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g